

THE 6TH PUSAN DANCE FESTIVAL

제 6 회

부산무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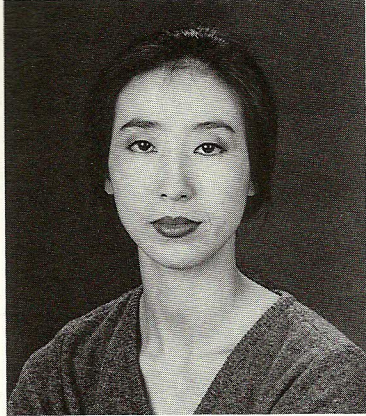
THE 6TH PUSAN DANCE FESTIVAL

1997. 6. 28(토) ~ 6. 30(월)

하오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한국무용협회 부산지회
-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예총부산지회
-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일보사 · 부산매일신문 · KBS부산방송총국
- MBC부산문화방송 · 기독교부산방송



스텝

- 예술감독 정귀인
- 안무 홍순미
- 대본 홍순미
- 음악 RHYTHIM DEVILS 그외
The Apoca lypse Now Sessions
- 무대미술 백철호
- 의상 조선자
- 무대감독 권영준
- 음향 정정식
- 조명 신상준
- 훈련 김보경 박원우
- 출연자 이정희 김정숙
- 전선애 류성범
- 김보경 최인미
- 박원우 정경선
- 박소연 김현진
- 박은영 성귀순
- 김문정 신진아
- 공영민 백진주
- 안덕희 양소영
- 강모세 조희정
- 손민수 윤시내
- 이은진 박종수
- 이주원 홍순미
- 채행수(부산현대무용단원)

• 작품내용

1장 : 자연 그대로의 춤

흙내음으로 자연을 향기 맡으며 순진한 몸짓으로 자연에게로 다가가보려 한다.
거대한 자연속으로 밀알같은 인간들은 서서히 흡수되어가길 원할뿐이다.

2장 : 인공적인 오염의 춤

인공적으로 만든 차가운 얼음덩어리 그 속 추억마리 대장균, 굼주림의 빵은
방부제로 만든 빵.

보기좋고 빛깔좋은 과일, 채소들은 농약 천국

모든 인간 덩어리는 부패덩어리, 거짓말쟁이 인간뿐

자연앞에 최소한의 인간임에 불구하고 더 이상의 오염은 끝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양심으로 살아 숨쉬는 자연으로 되돌려 놓
아 주자

3장 : 살아 있는 날개짓하리('97 캠페인)

희망과 야심의 소리를 질러 보자

날개야 돌아나라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살아 숨쉬는 날개짓 향해 힘차게 날아 보자꾸나

• 안무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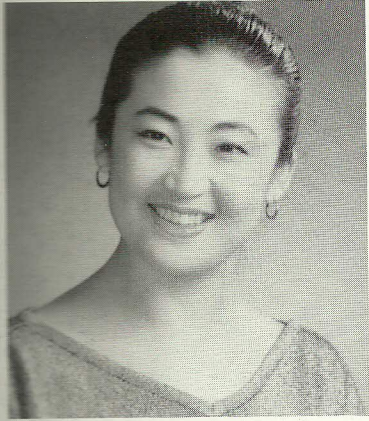
부패, 퇴색되어만 가는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들이 자연과의 부조화 세계로
흘러가는 지금 이순간 우리들은 방심할 수 없다.

제대로 숨쉬며 인간답게 살아 가려면 자연으로의 삶을 갈구 해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날개짓 하려면 우리들의 정서에 걸맞는 뿌리를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캠페인 정신이다.

캠페인 정신으로 더불어 산다면 우리 사회 가장 자연과의 가까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진단해 본다.



스텝

- 예술감독 양학련
- 대본 양학련
- 안 무 이현미
- 음악편집 MBC 김옥균
- 의 상 김명곤
- 조 명 신상준

- 출연자명단 이현미 노금선
- 이경희 이민아
- 강향화 신미영
- 김도영 김미자
- 김성희 김유한
- 김효정 빈순남
- 이상희 이정화
- 최송희 김미영
- 김진영 석기선
- 오정희 장은정
- 정순영 조수현
- 조준현 하선화

• 작품내용

13月の 유토피아는 . . . ?

20C에 있어 우리의 정신문화와 가치관의 혼돈과 속죄 속의 소용돌이에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사랑, 인간 관계를 정상화된 색(빛)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작자(안무자)는 묵화의 빛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우리의 정서인 먹빛이야 말로 우리의 맥을 찾아나서는 가치있는 작업이 아닐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를 갈구함이 아닌가 한다.

과연 우리곁에 13月の 묵화의 빛이 비취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13月은 물빛으로..., 먹빛으로..., 아니면 무지개 빛으로 찾아 오려나 너와 나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

이제 세월따라 먹빛되어 강물속에 흐르는 그것이 유토피아 인것을...



• 작품내용

길없는 길
 길없는 길을 걸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지 않으면 길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
 내가 어딘가를 향해 걷기 시작할때
 길은 어느 사이 저만치 앞서 달려간다.
 길이 없어, 이제껏 걸어왔는데
 누구나 어떤 길 위에서 서 있지
 삶이 다 할때까지 길을 벗어날 수는 없지
 날때부터 길 하나 품고 태어나는 것을
 마음안에 새로 난 길 하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 앞에 내가 서 있다.
 길은 언제나, 끝났다고 생각한 곳에서 다시 시작되었는데
 참 멀리도 걸어왔다. 꿈광이 핀 꿈 하나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아득히 뻗어있는데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는걸
 그리운 것들은 언제나 멀리 있지
 그리운 것들은 언제나 어두울 때 더욱 빛나지
 길 위에서 있을 때 나는 살아있다.
 길위에 서서 꿈을 꿀때 나는 살아있다.
 길 위에서 나는 자유롭고, 나비처럼 가벼워진다.
 길은 남아있다.
 다들 떠난 뒤에도 길은 남아
 다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기다린다.

스텝

- 연출 남정호
 - 안무 광선영
 - 작가 백창우
 - 음악 마봉진 편집
 - 의상 조선자
 - 미술 이현미
- 출연자명단
- | | |
|-----|-----|
| 이은경 | 강희정 |
| 이금화 | 오정화 |
| 김현미 | 이수지 |
| 윤유정 | 권성임 |
| 문라옥 | 조영미 |
| 김도연 | 김승태 |
| 박기범 | 이동용 |
| 남창훈 | 한중철 |
| 정유원 | |

• 안무의도

삶이 주어지고 그것이 다할때까지 때로는 파사로운 햇살이,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때도 있다. 인생이란 긴여정을 여자의 삶에 비추어서 과거, 현재, 미래
 3장으로 나누었으며 유희설에 근거를 두고 안무하였다.



스텝

- 예술감독 김은경
- 안무 장인숙
- 대본 김은경
- 음악 도인봉
- 의상 윤여정
- 조명 신상준

○ 출연자

- 김은경 신인영
- 박영미 김명숙
- 정옥경 김윤희
- 김현옥 제정미
- 유선이 안성희
- 이필정 이윤희
- 김지혜 윤혜영
- 손무진 김태희
- 김윤선 이정희
- 박수진 윤영옥
- 김정은 김정미
- 윤경숙 박혜경
- 김호정 배선영
- 박진향 조현영
- 이승아 황수미
- 장인숙

• 작품내용

어미. 영혼의 문을 열어 어린 딸의 숨소리를 듣는다.
 영육의 너더분한 찌거기를 씻어 내는 아이의 맑고 애절한 소리 소리..에밀레
 창포빛 숲속에서 이슬처럼 스며 나오는 안개 울음 에밀레...
 속세의 시름과 고통을 잠재우는 거룩한 소리 소리 그 종소리 에밀레 에밀레...
 온몸으로 울음 내어도 울음일것 같지 않은 소녀의 외로운 통곡 소리, 이제
 그 어둡고 추운 암흑 속에서 헤어나와 종소리 거룩한 허공을 날아 오르는 구나
 하늘을 기르는 에밀레 소리를 타고 두둥실 피어 오르는 어미와 딸의 영혼이 꽃
 향기 되어 영원 하구나

1장 범종불사

2장 어미

3장 세상을 밝히는 영원한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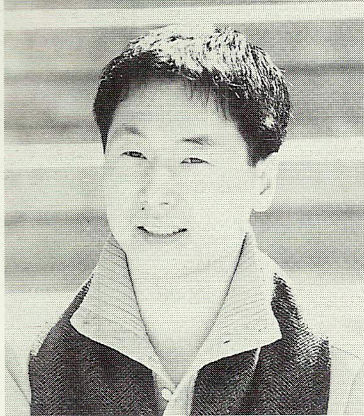
• 안무의도

잠시 역사 속으로의 여행이 있었다.

그 여행에서 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희생의 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희생의 아픔과 고통은 또 다른 귀중한 아름다움을 잉태하여 영원히 사라지
 지 않는 꽃을 피우면서 그 향기를 지켜 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 꽃을 바로 희생양의 꽃을, 그리고 내가 그리는 이상형의 꽃을 피우고 싶었다.



• 작품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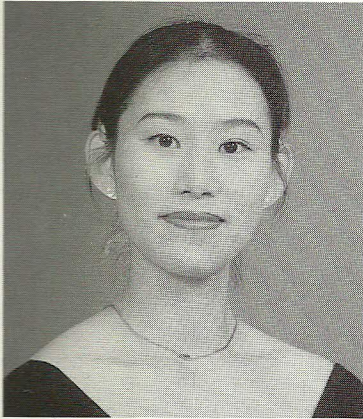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기억의 스폰지에 흡수된 대개의 일들은
당연한 일인양 인상지워지고 행동되어진다.
이제 나를 돌아보며 질퍽이고 어긋난
발자국을 가슴에 묻는다.

• 안무의도

삶속에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적인 일들이 불쑥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좌절을 맞보기도 하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실에서 벗어난 은신처를 갖고 싶어하며
그런 현대인의 고독을 절제된 동작으로 이미지 형상화 한다.

스텝

- 예술감독 최은희
 - 안무 김종덕
 - 대본 김종덕
 - 음악편집 정정식
 - 무대미술 김원태
 - 의상 김영곤
 - 출연자 신은주
- | | |
|-----|--------------|
| 홍이경 | 안영주 |
| 박영애 | 강선화 |
| 김민주 | 김현주 |
| 노명덕 | 류지니 |
| 변윤정 | 장향인 |
| 김윤희 | 한혜경 |
| 안유미 | 박미영(특별출연) |
| | (현 시립무용단 단원) |



스텝

- 총연출 주수광
- 안무 한철선
- 대본 정영미
- 의상 ROSE
- 음악 신영순
- 무대감독 권영준
- 무대미술 배선주
- 무대장치 강주아

- 출연자명단 여은영 김영지
- 장종남 김말주
- 김수미 최미순
- 최수희 황선영
- 김남영 이성희
- 정은숙 김경애
- 김영덕 김혜연
- 백민영 오지은
- 조선영 허세린
- 박우진(특별출연)

• 작품내용

제1장 아름다운 바다

아침햇살을 받아 찬란히 빛나는 물결속에 가만히 밀려와 속삭입니다.
작은 꿈 하나를 보듬어 안고 바다의 노래에 도취된 채
오늘도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섬은 어느새 애인이 되고 나도 가만히 섬이되어 바다와 어울려집니다.
바다에 스치는 바람도 선율을 타고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제2장 격랑속에서

어느새 밤이 왔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끝이 조금씩 시려 오네요.
사랑의 숨결로 다가왔다가 어느새 캄캄한 어둠속으로 날 던져 버리려는 걸까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바위처럼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누구에겐가로 타전을 합니다.

제3장 또 다른 바다

가슴에 무엇이 스쳐갔을까요.
여전히 청명한 하루가 펼쳐졌지만
간밤 뿌리가 흔들리던 기억만큼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섬은, 혹은 나는 만나고 싶습니다.
수평선 너머에 있을 또 다른 나를 가만히 손을 내밀어 봅니다.
내일이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도 손끝에 온기가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무의도

여자는 세상이라는 바다위에 떠 있는 하나의 섬이다.
연인처럼 따뜻하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나싶게 깊은 생채기를 남기기도 하는 바다.
혼자 떠 있는 듯한 고독에 몸을 떨다 주위를 돌아보면 거기에도 언제나 바다가 있다.
여자의 삶, 넓게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삶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싶다.